

▲생사가 고(苦)인줄 분명히 알았으면,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목수를 찾아야 하고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도를 닦으려면 명안종사를 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마음속의 탐진치(貪嗔痴)를 없애야 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 그릇을 비우고 와서 나의 법을 배우라"고 하시고 과거의 선지식들께서는 "쉬어가라. 끝없는 세월동안 익히는 나쁜 버릇 고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불보살의 가피를 입는 것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갖가지 장애를 막아주어 수행의 길에 어려움이 없게 합니다.

—스님께서는 '쟁이'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를 잘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계을입니다. 수행에 들어가자 전에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계율이 승가의 규율정도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아요. 계율은 수행에 밀접한 '도우미'입니다. 수행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조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여 외부의 장애를 막아주기도 하고 수행자의 마음이 밖으로 치닫는 장애 또한 막아줍니다. 원효스님은 수행자의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계율 가짐이 청정해야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약 청정하지 못하면 반드시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라면 응당 계율을 외워야 하며 또 재가자라면 보살계본을 외워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삼귀오계를 외면 귀신이 도리어 도망간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은 애정을 지녔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의 출가인연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7살 되던해 고향 울주에서, 영웅호걸들은 도사들을 만나 도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원효스님 같은 도사를 만나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수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산문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동래 범어사에 도착했습니다.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있으면 나와보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동산스님이 나와 보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원효대사 같은 도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더니 스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지어놓고 놓고 먹는데 전국민이 출가해서 절에서 놓고 먹는다면 누가 그 식량을 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다면, 이 절을 불태워버리겠습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더니 동산스님께서 "참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네"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도사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통도사 조계암에 들어가 수도를 하다가 은사이신 성암스님을 만나 출가하게 됐고, 은사스님의 권유로 원효대사가 공부했던 함백산 토굴에 움막을 지어 10년동안 풀만 뜯어 먹으며 수행했습니다. 원효대사 이후 300년전인 진묵대사 뒤로는 진짜 자기일 제대로 하는 도인들이 흔치 않아요.

—스님께서 오랜 구도의 길에서 선 지식들과 교유도 많으셨지만, 재가자들 많이 이끌어주시면서 뜻깊은 인연도 많으셨으리라고 합니다.

▲당대의 고승 중진스님들과 모두 법거랑을 나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많은 재가자들의



◇인물이 인연터를 잘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성수스님은 인류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은 도를 아는데 쏟았습니다. 결국 헛 일을 한 셈입니다." 순간 출가 스님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장거사는 거룩한 불사를 하고 싶었고, 그것을 잘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방 그것도 작은 토굴에서 1~2명이 정진하는 남자들이에게 먹을 걱정 없게 해주는 불사를 권했고 내맡겨서 이행했어요. 6년여 뒤 다시 찾아온 장거사에게 본격적인 인재불사를 권했습니다. 물질만드는 공장에 수억원씩 내면서 사람만드는 공장에 돈이 많이 드는데 적게든대 말이 많다고 직탄을 넣었습니다. 밥값에서 집값까지 도인 안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후 두달여를 산이 수려하고 강이 좋은 부지를 물색하느라 다녔고, 영암 석남사에 터를 잡아 100만평을 축광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대토보상목심이 늘어나면서 결국 인재도량 조성불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

의 서울 남산에 대원정사를 지은 것입니다. 장거사는 훌륭한 재가수행자입니다.

—스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를 바로 키우는 사회를 만들 도량이 꼭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너른 데만 보면 눈이 환해져요. 늙은 척 해봐야 반가워 할 이 없고, 나 자랑해도 좋잖아 사람 없애 나 혼자 기대에 꼭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달리 만드는 것이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진인이 나오도록 나는 심부름을 할 생각입니다. 사할들이 이제는 기록에 그만 빠져두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는 곳'이 절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도인을 길러내는데 온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대담=위영란 부장 (yryui@buddho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opia.com)

호림스님이 쓰는 이련스님

■ 호탕한 견진스님

무상한 것이 세상의 일이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높고 높은 태산도 무너질 때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라 무엇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작년 초여름때의 일이다. 암으로 일년 여를 고생하던 견진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세납으로 60도 넘지 못하고 열반에 든 것이다. 주변 사람은 물론이고 본인에게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가셨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법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견진스님도 명을 재촉하지 않았나 싶다. 경기도 광주에 보현사라는 작은 절 하나를 짓기 위하여 몇 년을 무던하게 고생했다. 장례식에 모인 스님의 도반들도 "홍을 단신으로 사는 비구승이 너무 지나치게 몸을 무리하면 탈이 나는 법이여" 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전에 절기가 왕성할 때의 일이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에서 살다가 산관 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져 그만 절제중의 몇몇 젊은 선객들이 절을 나오고 말았다. 그 길로 우리는 서울로 올라와 도봉산 망월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춘성노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다.

망월사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사람이 춘성노스님의 제자인 견진스님이였다. 묵언(默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절제중에 찾아온 사연을 말씀드리고 방부를 부탁했지만 스님은 묵언을 핑계삼아 말없이 고개를 저어 거절했다. 그때 견진스님을 처음 만난 것이다.

법회위해 동분서주하더니 끝내 과로로 열반에...

그후 다시 내가 스님을 만나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몇 년이 지난뒤 오대산 상원사에서였다. 처음 만났을 때 묵언을 하던 것과는 달리 스님은 유머가 풍부하고 입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방선시간 같은 때에 지대방에 앉으면 오래히 스님의 입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은 모두 스님의 주변에 모여 귀를 기울이곤 했다. 동진(童眞)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된 이후 춘성 노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기량과 기질을 가꾸고 여러가지 법절을 익혔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 들은 법이 많아 절 집안이 전해 내려오는 일들을 소상하게 잘 알았다. 문헌으로 전해지지 않은 옛날 큰 스님들의 일화 같은 것을 견진스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춘성 노스님의 무애자재한 일화를 가장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평소에도 정리해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구참 스님들을 모시고 살면 배우는 것이 많은 법이다.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일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절집안에도 없어진 것이 많은데 그런것을 아주 잘 아는 분이 견진스님이였다. 가령 예를 든다면 법회를 할 때 금란방(禁亂房)을 붙이고 재계를 하는 것 등을 잘 알아서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견진스님이였다.

그러나 하면 기질이 막힘없이 활달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망설이지 않고 실행했다. 또 장난을 좋아하여 스님의 주변에는 항상 재미 있는 일이 따라다녔다. 거기다가 몸이 날쌔

고 힘이 장대했다. 한번은 대중이 모여 짐을 나르게 되었다. 리어카에 짐을 실어 나르는데 지름길로 간다고 하여 길도 없는 산언덕으로 리어카를 밀고갔다. 여럿이 달려들어서 잡아당기고 뒤에서는 밀고 해서 끌고가는데 도저히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아예 리어카를 돌려메고 갔다. 그렇게 힘이 넘쳐났다. 젊은 후배들에게는 대선스님과 더불어 가장 인기가 있었다. 어디를 가도 우리 후배들을 여러명씩 데리고 다녔다. 우리도 스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해 지리산 설악산 같은 등산도 스님을 따라서 했고, 만행도 여러번 했다. 스님이 해인사에 살 때는 스님을 따라서 해인사 선원에 방부를 들인 스님들도 많았다. 아무리 모가 난 사람이라도 스님은 그냥 좋아했다. 천성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다.

하지만 스님도 나이가 들면서 대중초소에 나오지 않았다. 성남에 작은 절을 하나 만들어 그곳에 주석했다. 목정이 좋아서 영불을 특히 잘했는데 많은 스님들이 견진스님을 초청해 영불을 듣고 스님의 법문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법회에 초청법사에 다니기를 몇 년이나 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힘으로 좋



그림·문병성

은 절을 하나 지어 보겠다는 것이 평소의 소박한 원력이었다. 그래서 그 원력이 성취하게 되어 경기도 광주에 땅을 장만해 제법 규모를 갖춘 절을 짓게 되었다.

한때 세상일이란 무상하기만 한 것이어서 마음먹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건강식품을 잘못 먹어 병원에 갔다가 영종하게도 암 진단을 받았다. 그것도 악성이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져 있어 저리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문병을 갔더니 그때는 음식까지 먹지 못해 기력이 완전히 쇠잔해 있었다. 그런 중에도 절을 짓는 일은 계속 진행하여 지난해 초파일은 미처 다 짓지 못한 보현사에서 보냈다. 그것이 마지막 초파일이었다.

열반소식을 듣고 달려가니 옛날 같이 해인사 상원사 등지에서 공부를 했던 스님들이와 있었다. 대비를 하는 날은 비조차 내렸다. 한 사람의 선계가 가는 길은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다. 스님의 도반스님 한분은 조사에서 "우리들중에 가장 건강하여 가장 먼저 가신 단 말이요. 이것은 도대체 어느 조사의 가증이요? 잘 잘하던 언변으로 한번 일러나 보시오"하며 비통해 했다.

밝음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것

철저한 믿음은 장애 없애주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다시 재발심을 내 수행하곤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생사 자재한 법을 구하기 전에는 밥도 물도 먹을 여가 없이 애간장이 녹아 다 타서 무가보배를 얻어서 무애함을 춘 뒤에 눈 밝은 선각자에게 하루 십여차례 문의해서 실오라기만 찰도 헛됨이 없어야 정진이 됩니다. 또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길일수록 묻지 않고 가다가 한발만 헛놓으면 무간지옥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산은 갈수록 높고 물도 갈수록 깊습니다. 도를 안 뉘가 더 어렵습니다. 불조 모두가 은산철벽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수미산이라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원효스님에 대해 깊

귀한 인연들도 많이 맺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분은 대한불교진흥원을 창설한 장경호거사입니다.

내 나이 31세 당시 그분은 62세였 습니다. 내가 통도사 건너편 천성산에 법수원(法水源)이라는 토굴을 짓고 도인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법수원을 근원 원(源)자로 쓴다는 도의 근본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도를 이루려는 원이 강했지요. 당시 스님들은 함께 탁마합시다 해도 오지 않았던 그때 장거사가 한달간 수행하겠다고 왔습니다. 장거사는 절구통수좌로 유명한 효봉스님처럼 2~3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돌부처처럼 정진하는 겁니다. 하루는 자연스럽게 수행 체험담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를 닦았다고 하는 30년 동안 헛말을 했습니다. 10년은 도 닦는다면 또 10년은 도 되는데 나머지 10년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검정콩**  
**金檀花**

“에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열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썰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배보다 더 쓰러라니까”

웃나무와 소나무의 율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뭉친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효체에 담갔다가 견저내 따뜻한 온물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들의 경우 수성 기간이 좀더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율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여 그마저도 국산 율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신식 검정콩은 특이 변미.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그랑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정정소, 열암,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① 상담문의 ☎ (02) 3437-8282 ①

**왕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1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항토마을

· 모델 A : ₩3,800,000  
· 모델 B : ₩4,300,000

장도원 전문회사  
왕토마을에서는

- ① 항토 주택 토굴시공
- ①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① 항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우주의 생명에너지  
**레이키(REIKI·靈氣)법 전수**

레이키법은 기공수련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단신일내에 氣 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속성식 氣 능력자 양성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법은 우주에 가득차 있는 무진장한 레이키(사랑=빛=우주생명에너지=氣)를 언제나 스미치를 넣으면 절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원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법입니다. 레이키법은 소주천을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추천의 천지 기운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ATTUNEMENT)등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레이키에너지는 어튠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사랑, 동식물, 생활용품, 동물(환경도 포함)에 작용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중남미, 일본, 동남아, 오스트랄리아 등지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21세기에는 레이키에너지는 세계 인류의 각가정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생활도구로서 자리잡혀 갈 것입니다. 의료비의 절감과 생활의 질의 향상 등의 인류의 복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키에너지입니다. 레이키법은 좋은 기공법과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공 수련을 하는 사람이 레이키법을 전수하면 능력이 향상되고 레이키 요법기도 기공수련을 하면 능력이 향상됩니다.

나(박희준)는 지난 20년간 氣, 정신세계분야의 번역저술가로 활동해 오는데 10년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내면서 여러가지 기공수련도 해 보았으나 극히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부터 여러차례 외국을 내방하면서 특별히 레이키법을 전수받고 상당한 氣치로 능력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께 레이키법을 전수받을 것을 권합니다.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사업관련자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①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 70만원 ①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7가 89 피어선빌딩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